

#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 방안은 학생 통제, 학부모 민원으로 교사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 것

8월 23일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터져나온 집회가 매주 계속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물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시작될 때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대책은 교육 환경 개선에 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사들을 계속해서 갈등과 분란에 빠트릴 공산이 큰 방안들이다.

예를 들어,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의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한다는 방안은 교사 업무는 줄이지 못하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공무직과의 갈등만 커질 수 있다. 이미 공무원과 공무직 노조들은 교사의 민원 업무까지 떠맡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법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규정하고, 악성 민원 학부모에게 특별교육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교육과 과태료 부과 위협으로 악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법으로 '악성' 민원과 정당한 생

활지도 등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것이 정말 '악성' 민원인지, '정당한' 생활지도권인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학생인권조례 수정과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교사들이 학내 갈등만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생활지도 고시안도 학내 갈등을 키울 문제투성이 방안이다.

예를 들어, 고시안은 긴급한 경우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가 체벌인지를 놓고 논란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방안도 학생을 낙인 찍는 효과만 내고 교육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일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들이 학생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인력 확충 등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은 정당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우 미흡한 대책만을 내놓고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자 많은 교사는 주말 집회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지금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재량 휴업, 연가, 병가 등의 방식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교사가 8월 24일 기준으로 이미 7만 명을 넘었다.

교사들의 단체행동이 예고되자 교육

부는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교사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정부와 교육 당국이 또다시 별 볼 일 없는 대책이나 내놓으며 교사들에게 참고 있으라고 하니 교사들은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

반면, 진보 교육감들은 9월 4일 재량 휴업 추진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고진 세종교육감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9월 4일에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들은 지금껏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임하고,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온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은 8월 19일 집회 때 연단에 올랐다가 교사들의 거센 항의와 야유를 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진보 교육감들의 이런 발표는 9월 4일 행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9월 4일이 다가올수록 ‘공교육 멈춤의 날’을 비난하는 정부와 우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정부의 징계 위협도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단 하루뿐일지라도 단체행동으로 힘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정부와 교육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도록 만들기는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9월 4일 행동에 더 많은 교사가 참가해야 한다.

# 원주의 초등교사가 말한다

##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여하는 이유

9월 4일은 서이초 교사 49재이고,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서이초 교사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 괴로워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8월 23일 까지 전체 교사의 절반 이상이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 내가 행동 참여를 제안하며 동료 선생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내가 신규 발령이 난 10년 전에도 그 지역에서 목숨을 끊은 신규 교사가 한 명 있었다. 비록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말이다. 언론을 통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널리 알려졌지만, 그전에도 교사들의 죽음은 여럿 있었다. 이번 계기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널리 알려지고 변화가 생기면 좋겠다.”

나 또한 이러한 생각에 동의한다. 여기에 덧붙여, 교사들의 행동이 학부모를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도 이야기하고 싶다. 서이초 교사가 과도한 업무뿐 아니라 '악성 민원'에도 고통받았지만, 이 문제를 학부모와 교사의 권리 대 권리, 법적 해결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 문제가 법적인 해결로만 접근이 이뤄지면서, 교육적 해결은 무척이나 어려워졌다는 데 교사들의 공감대가 많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히 학생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서로 조율하고 대화하며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법적 해결에만 몰두하면서 자신만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쌍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중간에 끼인 교사에게 학부모가 “한쪽 편만 든다”는



불만을 갖고 '악성 민원'을 넣는 일도 종종 생긴다.

'악성 민원' 문제도 법적 해결 문제로만 접근하면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신만 키우고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소외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 소외를 영종한 데 화풀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그 대상이 교사가 됐을 때 그 화풀이를 교사 한 명이 혼자서 오롯이 받아내야만 하는 현 교육 시스템이다.

게다가 '악성 민원'이 있는 학급의 경우 학급 내 다른 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에 더더욱 '시스템적 해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 노동자들의 총원과 떨어질 수 없는 문제다.

또 다른 동료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도 기억에 남는다. 날이 갈수록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많아지는데, 지금의 학급당 학생 수로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신경 쓰고 어려운 행동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고 담임 교사가 전문 상담 교사, 동료 교사 등 여러 사람과 의논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요컨대, 과도한 업무든 '악성 민원'이든, 인력 총원과 처우 개선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대안이 더 많이 이야기되고,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더 많은 교사가 동참하길 바란다.

**▶ 추천 동영상**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youtube.com/watch?v=TeAD45wT1iA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한다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 구독
- ♡ 좋아요
-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옥스퍼드 대학교 존 패링턴 교수 초청 강연

**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까?**

9월 4일(월) 오후 8시

발제 존 패링턴  
옥스퍼드 대학교 세포/분자역리학부교수  
인간의 노와 의식 연구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  
노동자연대TV 검색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